

주간 전남농업

VOL. 251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9월 넷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곡성군,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 표시 획득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23.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2019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개최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1~18도, 최고기온 : 23 ~ 26도)과 비슷함
- ▶ 강수량은 평년(1 ~6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토마토, 방울토마토(대추형)
- ▶ 딸기, 오이(취청)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 ▶ 휴경지, 풋거름작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요
- ▶ ‘안전 부속 퇴비’ 안전 농산물 생산의 첫 걸음

- ▶ 청포도 ‘샤인머스켓’, 송이 무게로 품질 높인다
- ▶ 한우와 젖소, 환절기 질병에 주의 하세요
- ▶ 수확 후 고랭지 경사 밭, 작물 가꿔 토양 지켜요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4

- ▶ 전남농기원,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
- ▶ 전남농기원, 2019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개최
- ▶ 전남농기원, 2020년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 공모
- ▶ 농촌청년사업가 담양 고재규 대표, ‘담근주 키트’ 개발
- ▶ 양파종자도 탈일본.... 국산 종자로 대체 본격화
- ▶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 농업인 일손 덜 농약 방제 ‘드론 활용’ 기반 마련
- ▶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컨설팅 나서
- ▶ 껌질째 먹는 우리 포도 ‘홍주씨들리스’ 소비자에 첫 선
- ▶ 국제농업박람회장서 가족힐링이벤트 즐기세요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6

- ▶ 곡성군,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 표시 획득
- ▶ 곡성군, 멜론 추석 명절 선물로 각광 받아

- ▶ 화순군, 마늘 적기 파종 당부
- ▶ 화순군, 고품질 김장채소 안정생산 당부
- ▶ 강진군, 논 타작물로 고품질 조사료 수확 시작
- ▶ 강진군, 마늘 쪽분리 자동화시스템 ‘대박’
- ▶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 ‘총매출 2억 원’ 돌파
- ▶ 해남군, 농수특산물 경쟁력 도지사품질인증으로 높이자!
- ▶ 해남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방역‘총력’
- ▶ 무안군, 아열대과일 백향과 본격 출하
- ▶ 함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 ▶ 영광군,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교육 실시

7. 해외 농업정보 48

- ▶ 베트남, 포도 시장 현황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23.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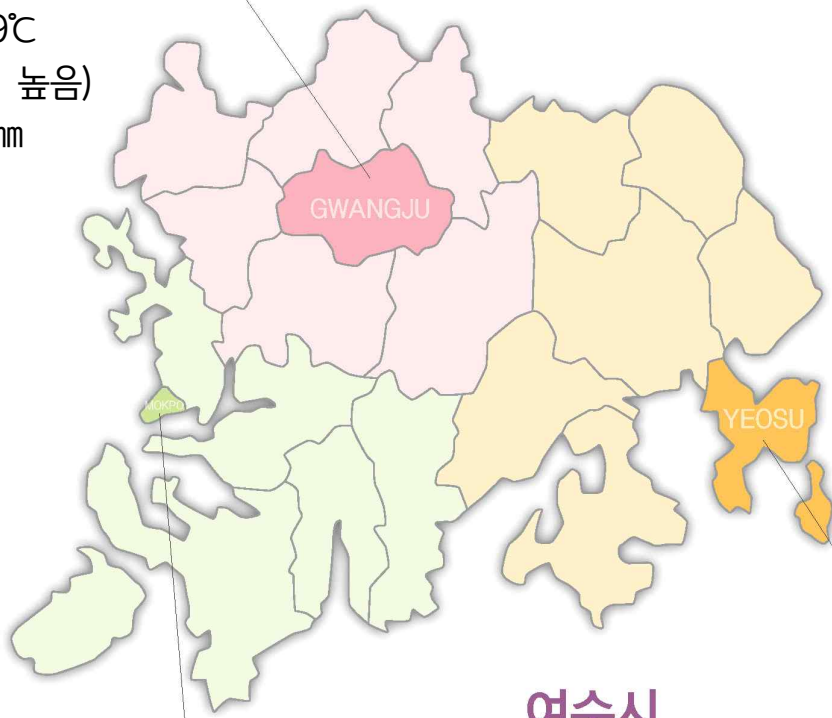
8. 농식품 빅데이터(인증제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52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 우수식품정보시스템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1.3℃
(평년대비 1.5℃ 높음)
- 최고기온 : 25.7℃
(평년대비 0.4℃ 낮음)
- 최저기온 : 16.9℃
(평년대비 1.5℃ 높음)
- 강 수 량 : 2.7mm



목포시

- 평균기온 : 21.5℃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24.9℃
(평년대비 0.3℃ 낮음)
- 최저기온 : 18.1℃
(평년대비 1.6℃ 높음)
- 강 수 량 : 2.5mm

여수시

- 평균기온 : 21.9℃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25.7℃
(평년대비 1.6℃ 높음)
- 최저기온 : 18.1℃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4.0mm



주요 과채류 9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9~10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과채류	9월	10월
일반토마토	-0.3%	-4%
대추형 방울토마토	5%	3%
수박	4%	4%
청양겨짓고추	6%	-4%
일반풋고추	-7%	-6%
애호박	2%	-4%
백다다기오이	4%	-1%
취청오이	1%	1%
딸기	-1%	-2%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마토

↑ 출하 전망 : 9월 출하량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9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원지역에서는 전년 기상악화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많았으나, 올해는 출하를 지속하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 충청·전남지역에서는 타 작목 전환과 최근 가격 하락 및 작황 부진으로 재배포기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9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전망이다.

↑ 정식 의향 : 9월 정식면적 전년과 비슷, 10~11월 감소 전망

- 9월 정식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경남 창녕, 충남예산, 전남 담양에서는 가지, 오이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으나, 경북·전남 보성에서는 유류비부담과 출하시기 연장을 위해 9월로 정식시기를 앞당기려는 농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 10~11월 정식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 감소할 것으로전망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개발로 토마토 재배면적이 일부 수용되었다. 전남·경북·충남지역에서는 유류비 부담 및 봄철 가격 하락 영향으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정식을 앞당기는 농가가 많아 정식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대추형)

↑ 출하 전망 : 9월 출하량 전년보다 5% 증가 전망

- 9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호남지역에서는 시설면적이 확대되었고, 전년출하기 가격이 높아 수박, 호박, 오이 등에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단수는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강원·충청·영남지역에서는 7~8월 잦은 비로 평년보다 착과율이 적으나, 폭염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는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흐린 날이 지속되면서 수정 및 착과가 불량하고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 발병도 늘어 전년보다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9월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9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9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1만 9,700원)보다 낮은 상품 3kg 상자에 1만~1만3천 원으로 전망된다.



딸기

↑ 정식 의향 : 올해 정식면적 전년보다 1%증가 전망

- 2019/2020년산 딸기 정식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호남지역의 정식면적은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1% 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영남지역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품종별로는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설향이 전년보다 1% 증가한 반면, 장희는 주 정식지인 경남지역에서의 품종(설향 등) 전환으로 2% 감소할 전망이다. 죽향 정식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매향 정식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설향과 기타 품종(금실, 킹스베리 등)으로 품종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오이(취청)

↑ 출하 전망 : 9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9월 취청오이 출하면적은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단수는 폭염이 심했던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해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9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 많을 전망이다

↑ 정식 의향 : 9~10월 정식면적 전년보다 증가 전망

- 9월 정식면적은 충남 천안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확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정식면적은 전남 구례에서 재배면적 증가와 전남 순천에서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정식지연(9월→10월)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09. 23.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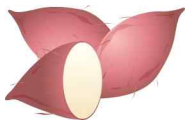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0kg	48,520	49,340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68	46,785	38,993	↑ 24.4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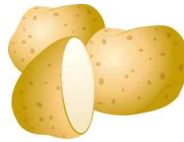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35kg	197,600	198,20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78,900	154,933	↑ 27.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kg	28,000	28,400	↓ 2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200	35,600	25,580	↑ 9.5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0kg	22,400	22,300	↓ 5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260	45,200	30,590	↓ 26.8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kg	18,400	12,800	↑ 4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	13,050	12,270	↑ 50.0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8kg	5,000	3,800	↓ 5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20	10,200	8,550	↓ 41.5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0개	50,667	51,667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2,000	51,167	45,644	↑ 11.0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0개	26,400	22,600	↑ 2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000	20,500	19,017	↑ 38.8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30kg	470,000	470,000	↓ 2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6,500	651,625	495,333	↓ 5.1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kg	53,400	69,400	↓ 2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800	73,350	55,847	↓ 4.4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20,000	120,000	↓ 25.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0kg	11,000	10,800	↓ 2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180	15,150	19,723	↓ 44.2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0kg	37,200	36,800	↓ 5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600	78,150	54,780	↓ 32.1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kg	2,080	2,120	↓ 2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40	2,790	2,174	↓ 4.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5kg	38,600	65,800	↓ 8.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040	42,350	30,963	↑ 24.7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개	15,400	14,800	↓ 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400	22,400	13,203	↑ 16.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kg	27,600	26,800	↓ 4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680	48,850	32,310	↓ 14.6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5kg	17,600	16,000	↓ 3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120	28,450	20,683	↓ 14.9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kg	-	34,0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440	-	-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5kg	35,400	41,600	↓ 3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6,700	51,650	42,017	↓ 15.7

키위(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kg	41,600	41,6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400	42,000	43,300	↓ 3.9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0g	8,935	8,676	↑ 8.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19	8,205	7,734	↑ 15.5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kg	5,117	5,051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98	5,216	5,086	↑ 0.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30kg	503,000	503,000	↑ 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000	498,600	522,400	↓ 3.7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kg	16,200	17,000	↓ 1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460	18,600	15,157	↑ 6.9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2kg	9,000	9,400	↑ 1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000	8,100	8,387	↑ 7.3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00g	2,109	2,013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06	2,130	2,146	↓ 1.7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30개	5,299	5,310	↓ 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13	5,567	5,672	↓ 6.6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23)	1주일전 (9/16)	전년대비	
1L	2,615	2,617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8	2,620	2,556	↑	2.3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9. 23.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36	5,580	5,608	↑ 1.0	↑ 0.5
거세	7,276	6,542	6,948	↑ 11.2	↑ 4.7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53	3,117	3,203	↑ 1.2	↓ 1.6
수	3,962	4,051	4,142	↓ 2.2	↓ 4.3

육우(천원/60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3,342	3,10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6		↓ 9.9

젖소송아지(천원/7일령)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398	40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		↑ 51.3

돼지(천원/11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495	38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9.6		↑ 8.3

육계(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1,294	1,29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5.0

계란(원/특란10개)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1,136	1,10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8		↓ 8.5

오리(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300	2,3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0.9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 고춧가루와 건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곰팡이 -

-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sp.)와 페니실리움(*Penicillium* sp.)이 주로 발생하며 습한 환경에서 쉽게 증식
- 특히 일부 아스퍼질러스종은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며, 이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고춧가루와 건고추 저장 관리 요령 -

- 고춧가루와 건고추는 수개월 저장하는 동안 온·습도에 따라 곰팡이 발생이 가능해 적정 환경에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온도(-20℃, 0℃, 4℃, 10℃)와 습도(51%, 69%, 93%)에서 10개월 이상 실험한 결과, 건고추보다 고춧가루에서 곰팡이 발생량이 많았음
- 곰팡이 발생이 가장 적은 온도는 건고추의 경우 0℃, 고춧가루는 10℃였으며, 습도는 69%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

- 온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량 변화



- 습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량 변화



-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이데레사 063-238-3202
-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 휴경지, 풋거름작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요

- 헤어리베치 키워 지력 향상 · 농지 재활용 · 경제적 효과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촌의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휴경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 전국에 0.9%(1985)였던 휴경지가 3.2%(2016)로 늘었다. 최근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자 휴경 시 1ha당 280만 원을 보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0ha에 시행한다.
- 휴경지는 공익적, 생태적 기능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 농지 기반 붕괴와 경관 악화, 병해충 발생 등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 논이나 밭에 경작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식생량이 늘게 된다. 휴경 1~2년에는 피, 여귀, 망초, 바랭이 등 일년생 잡초, 휴경 3~4년에는 썩, 부들, 왕달맞이꽃 등 다년생 잡초, 휴경 5년에는 억새, 버드나무, 아시아나무 등 목본류가 우점을 하게 된다.
- 풋거름작물로 휴경지를 관리하면 지력 향상, 농지 재활용, 경관 조성과 꿀밭(밀원) 활용으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 휴경지에 3년 간 헤어리베치를 키우면 토양 유기물 함량은 0.2%, 토양 공극량은 0.4% 늘어 토양이화학성과 지력이 좋아진다.
- 풋거름작물 헤어리베치를 9월에 파종하면 이듬해 재생, 잡초가 나기 전에 우점하여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꽃이 퍼 볼거리나 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완전 부숙 퇴비’ 안전 농산물 생산의 첫 걸음

- 농촌진흥청, 퇴비 부숙도에 따른 유해미생물 검출 조사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축분 퇴비는 완전 부숙시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배추 등 김장 채소에는 가축분 퇴비를 밑거름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퇴비 부숙도에 따른 유해미생물 검출을 조사한 결과, 완전 부숙 퇴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부숙 퇴비에서는 검출됐다.
- 유해미생물이 있는 경우, 재배 기간 동안 작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히 부숙된 가축분 퇴비를 이용하도록 한다.
- 농가에서 퇴비를 만들 경우, 부숙도 간이 판별법이나 측정기를 활용해 완전 부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숙도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부숙도 측정기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판별할 수 있다.
- 잘 부숙된 퇴비는 갈색 또는 흑색을 띤다. 축분의 모양이나 냄새가 없고, 손으로 움켜쥐면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솔비타(Solvita) 같은 부숙도 측정기로 완전 부숙 여부를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다. 측정기는 퇴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부숙도를 판정한다.
- 퇴비 부숙도 측정에는 4시간이 걸리며,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값을 1~8까지 지표로 나타낸다. 8점 만점에 7~8이면 완전 부숙된 것으로 본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청포도 ‘샤인머스켓’, 송이 무게로 품질 높인다

- 가지 당 500~700g, 1~1.5송이... 송이 크면 당도 · 향 덜 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청포도 품종 ‘샤인머스켓’의 맛과 품질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제시했다.
- 최근 머스켓향의 포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국의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면적은 1,867헥타르(ha)까지 늘었다2).
- ‘샤인머스켓’의 품질을 높이려면 송이 무게를 조절해야 한다. 껍질 색과 당도, 익는 시기 등에 맞춰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송이가 크면 당도가 낮고 향도 풍부하지 않다. 저장 양분이 부족해 겨울철에는 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샤인머스켓 한 송이는 500g~700g, 37개~50개의 알이 달리는 것이 알맞다. 포도 알이 안쪽 또는 위쪽으로 자라거나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것, 상처 난 것은 먼저 솎아낸다. 예를 들어, 가지 한 개당 500g짜리 한 송이 기준 1.5송이, 700g짜리는 1송이만 열리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 청포도 특성상 껍질 색만으로는 수확 시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당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알맞게 잘 익은 샤인머스켓의 기준 당도는 18.0브릭스(°Bx) 이상이다. 이른 수확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꽃이 활짝 핀 뒤 105일 정도 성숙기가 필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 한우와 젖소, 환절기 질병에 주의 하세요

- 큰 일교차에 스트레스 커... 호흡기 질병 · 설사병 백신으로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우나 젖소도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는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환절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 환절기에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물론,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소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고 가능하면 격리시켜야 한다.
- 우사(牛舍)는 다른 축종에 비해 개방적인 구조의 축사가 많다. 이때 차단막을 설치하면 밤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낮에는 차단막을 걷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가스를 내보내야 한다.
-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호흡기 질병은 백신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 초기에 치료한다.
- 처음에는 투명한 콧물을 흘리다가 누렇고 끈적끈적하게 변한다.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 송아지는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하고 보온에 주의한다.

- 호흡기 질병은 전염성 비기관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페렴 등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을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 3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한다.
- 설사병은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등 예방 백신을 임신한 소에 주사하거나 분만 직후 송아지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일교차가 크고 추운 날에는 보온등과 방한복을 활용해 적정 체온(38.5~39.0℃)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젖소의 경우, 간에 부담을 주는 큰 일교차로 케토시스, 지방간 같은 영양 대사성질병에 걸리거나 이등유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 비타민 B, C, E와 미량의 광물질을 투여해 간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 “소를 비롯한 모든 가축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수확 후 고랭지 경사 밭, 작물 가꿔 토양 지켜요

- 농촌진흥청, 추위 강하고 토양 보전 효과 큰 호밀·알팔파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배추나 감자 등 주작물을 모두 수확한 고랭지 경사 밭에 호밀, 알팔파 같은 피복작물을 파종하면 토양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고랭지 감자, 배추 등 여름작물 재배지는 대부분 경사 밭이다. 수확 후 늦으면 이듬해 6월까지도 흙이 드러난 채 방치되기도 한다.
-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 이른 봄에는 눈과 얼음이 녹아 비옥한 흙과 각종 영양분이 유실될 위험이 높다.
- 토양이 계속 쓸려 나가면 밭에는 잔돌과 자갈만 남기도 한다. 최근 유효 토심은 1975년에 비해 40cm~140cm까지 줄었다.
- 이로 인해 7~8%였던 토양유기물 함량도 2~3%로 줄고 지력도 약해지면서 객토를 자주하게 된다. 화학비료나 축분 퇴비도 기준보다 20~50%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 겨울 추위가 매서운 고랭지 피복작물로는 추위에 강한 호밀, 알팔파가 알맞다. 주작물(감자, 배추) 수확 직후부터 10월 상순까지 10a당 호밀은 15~20kg, 알팔파는 3kg가량 뿌려준다. 이때 흙을 덮어주면 유실되는 토양을 기존의 1/1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 호밀은 화분과 작물이라 토양에 남아 있는 영양분을 잡아준다. 영하 30℃에서도 얼어 죽지 않아 고랭지에서 겨울나기가 가능하며, 이후 초기 생육도 좋아 봄철 토양 보전 효과가 크다.
- 알팔파도 영하 25℃에서 죽지 않는 작물로, 이른 봄에 생육이 빨라 토양 피복 효과가 크다. 콩과 작물이라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 토양에 돌려주는 양분 공급 효과도 좋다.
- 이듬해 6월까지, 호밀은 약 4,000kg/10a(생체량 기준), 알팔파는 약 4,500kg/10a(생체량 기준)을 얻을 수 있고, 사료나 풋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구본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수확이 끝난 고랭지 경사 밭에 피복작물을 키우면 큰 비나 거센 바람, 녹은 눈에 토양이 쓸려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라며, “유실되는 토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약해진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

- 태풍‘링링’피해 농가서 과일줍기로 구슬 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제13호 태풍‘링링’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촌 피해현장 일손돕기에 나섰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150여 명의 전 직원이 배 낙과 피해가 심한 순천시 낙안면과 나주시 일대를 찾아 떨어진 과일을 줍고,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와 시설물을 정리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 또한 피해복구와 더불어 과수원 환경정비 작업과 함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당부하였다.
- 과수는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주고,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부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처과나 기형과는 숙아주고, 낙과된 과실도 신속 처리하여 병해충 발생과 야생동물 유입 요인을 줄여야 한다.
- 또 쓰러진 벼는 4~6포기씩 묶어 세우고, 흙 속에 묻힌 벼는 가능한 빨리 흙을 제거해 주고, 고추 등 발작물은 탄저병이나 역병 등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용약제를 뿌려서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2019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개최

- 금년 핵심 시범사업 평가,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보완 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과 시범단지 대표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평가회는 쌀 수급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벼 저비용 유기재배 단지, 벼 소식재배 실증단지, 콩 친환경 단지 등 주요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비교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 발전시키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특히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금년에 중점 추진한 벼 소식재배는 10a당 모판수를 기존 20~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여 생력화 및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이양방법으로 지난 5월에 연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또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시범사업”은 육묘과정 생략과 파종 동시 1회 시비로 노동력이 일반 모내기보다 노동시간 23%, 총 생산비 10%, 경영비는 8% 절감하여 도내 6,903ha를 실천하여 52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평가회 결과 금년 벼농사는 병해충 적기방제와 질소비료 표준시비 등 시기별 핵심기술을 정밀실천하고 작황이 좋아 태풍 ‘링링’에 의한 도복 등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 정도 증가된 10a당 505kg 생산이 예상된다.
- 아울러, 밭작물 시범사업은 기상여건이 좋아 평년작 수준 이상으로 좋았으며, 특히, 시범사업 중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은 노지의 정밀 물관리 기술로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 농작물 생육상황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 “시범사업의 최종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큰 시범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가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수출단지 육성, 외래품종 대체 국내 고품질 품종 재배 확대, 쌀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등을 발굴 확대해 나가고 재배기술도 생산성 향상보다는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2020년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 공모

- 오는 9월 30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 농촌현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 망설이는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천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2020년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 자격요건은 전남도내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1981. 1. 1. ~ 2002. 12. 31.에 출생한 청년 농업인으로 20명을 모집한다.
- 사업대상자 선발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농업 경영체에 대해 농업기술원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교육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된다.
- 특히 2차 심사 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개개인의 환경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농업분야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는 20백만 원~30백만 원을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청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공지사항과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jares.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청년사업가 담양 고재규 대표, '담금주 키트' 개발

- 원초의 모습 그대로 '담금주'로 태어나다 -

-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에서 꽃과 과일을 활용한 담금주 키트 상품이 선보이게 되어 독주보다 은은한 향을 즐기는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상품 개발자는 담양의 (주)꿈에그린농장 고재규 대표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사업을 통해 대나무, 국화, 딸기, 야관문, 감귤류 등 5종의 담금주 키트 상품을 개발하였다.
- 담금주 키트는 과일이나 꽃 등을 원형 그대로 건조시켜 병에 담아 소주나 보드카 등 원하는 주류를 담가 마실 수 있도록 제품화 한 것으로 담금주에 들어가는 당분을 원당과 사탕수수를 혼합하여 차별화 하고 꽃, 과일 등 원재료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즐길 수 있어 기념일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고대표는 대학졸업 후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청년사업가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가공창업, 브랜드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통해 새싹보리분말, 여주즙, 작두콩차, 우엉차 등의 제품 들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품질지수의 확보를 위해 6차산업 인증, 벤처기업인증,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등 다양한 역량증대 등을 통해 최고의 청년농업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양파종자도 탈일본... 국산 종자로 대체 본격화

- 전남도 개발 양파품종 일본 종자 대체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일본산 양파 종자를 대체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을 확대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8,467ha로 전국 21,777ha의 약 39%를 차지하는 주산지이지만 종자의 60~70%를 일본산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식품수출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 종자가 2만1917kg 826만6146달러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에서 일본 양파 품종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품종이 국산품종에 비해 우수하다는 농업인들의 막연한 선호의식이 한몫을 한다는게 종묘 업계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 도 농기원은 그동안 극조생종 품종“파링”을 개발하여 국내종묘업체 (유)대농씨드를 통해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 특히, 올 해 생산력 검정을 마친 전남10호(중만생), 전남11호(중생) 계통은 일본품종에 비해 수량은 대등하면서 분구와 추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량은 4~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계통은 품종보호출원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묘업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전남도는 앞으로도 종자산업을 블루이코노미 비전과 연계하여 민관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파 육종·증식·판매 허브를 구축하여 종자로 돈 버는 농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김 지사 특별지시로 ‘청정 전남’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

- 전라남도가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김영록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20일부터 가축 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ASF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나섰다.
- 그동안 전라남도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실 운영,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 이동통제초소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 이날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확대한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매몰지 환경 정비, 의료 방역 지원 기능 등을 더한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시 신속하게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전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
- 김 지사는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히 차단, ‘청정 전남’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인 일손 덜 농약 방제 '드론 활용'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
-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무인항공 방제해왔다. 최근에는 보다 저렴하고 조종이 간단한 드론이 주목받으면서 무인헬기 외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가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발했다.
- 등록 기준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이며,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 이 시험 기준과 방법은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했다.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 이 시험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컨설팅 나서

- 컨설팅 업체로 롯데슈퍼 지정...개설 시 개소당 2천만 원 지원 -

- 전라남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지역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문의를 늘고 있어 매장 개설을 위한 현장 실사, 직매장 레이아웃 도면 작성, 점포 내 상품 구성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 지원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를 바라는 지자체,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재단공익법인이다.
- 사업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시군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개소당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국내 슈퍼마켓 운영 노하우와 점포 기획 우수 인력을 보유한 롯데슈퍼를 컨설팅 업체로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 롯데슈퍼는 전국에 465개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슈퍼마켓 업계 1위 업체다. 지난 6월 전라남도과 롯데슈퍼 간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롯데슈퍼 광주 풍암점에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껍질째 먹는 우리 포도 ‘홍주씨들리스’ 소비자에 첫 선

- 18일 경북 상주서 현장 평가회... 외국산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껍질째 먹는 포도 ‘홍주씨들리스’가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였다.
- ‘홍주씨들리스’ 품종은 머스켓향이 나며 알이 큰 포도 ‘이탈리아(Italia)’와 씨가 없고 아삭한 포도 ‘펠론(Perlon)’을 교배해 육성했다. 2017년 농가 보급을 시작했으며, 은은한 향이 나고 9월 중순께 익는 씨 없는 포도 품종이다.
- 시장에 내놓는 ‘홍주씨들리스’는 가장 먼저 품종이 보급된 경북 상주의 시범 작목반(2ha)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포도다.
- 빨간빛의 외국산 ‘크림슨씨들리스’ 품종과 당도(18.3°Bx)는 비슷하나 산 함량(0.62%)이 적당히 높아 새콤달콤하다. ‘크림슨씨들리스’ 한 알은 3.5g이지만, ‘홍주씨들리스’는 6g 정도로 알이 크다.
- 지난해 경매사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에서 ‘당도 4.2’, ‘육질 4.2’, ‘단단함 3.9’(5점 만점)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알이 잘 떨어지지 않아 저장성이 좋으므로 시장 가격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과수과장은 “씨 없는 외국산 포도를 대체할 국산 ‘홍주씨들리스’ 품종이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제농업박람회장서 가족힐링이벤트 즐기세요

- 미니정원 만들기 등 6종 체험행사...1천 가족 선착순 모집 -

-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사장 김영록)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에서 가족힐링이벤트를 추진키로 하고, 참가자 1천 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가족힐링이벤트는 1천 가족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박람회 행사 기간 중 주말인 10월 19~20, 26~27일 4일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받고 체험비는 한 가족당 1만 원이다.
- 체험행사는 우리가족 미니정원 만들기, 천연염색 가족티셔츠 만들기, 가족 캐리커처 그리기, 치즈 만들기, 온가족 천연 바스용품 만들기, 단감 따기 체험 등 6종이다.
- 가족 미니정원 만들기는 전라남도 도시농업연구회 회원과 함께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바구니) 만들기 체험이다. 천연염색 가족 티셔츠 만들기는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 참여, 천연염료인 쪽을 이용해 가족 티셔츠를 만드는 추억을 선물한다. 캐리커처 그리기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남겨 준다.

- 치즈 만들기 체험은 전남유가공연구회 회원들이 참여해 유기농 치즈, 요구르트 등을 만들어보도록 지원한다. 천연 바스용품 만들기에선 아토피 민감 피부에 좋은 천연 입욕제 등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볼 수 있다. 농산물수확체험장에서는 전남농업기술원 과수포장에서 재배한 단감을 수확해볼 수 있다.
- 이밖에도 같은 기간 동안 펼쳐지는 드론 경진대회, 한 평 텃밭 정원 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까지 3종의 경진대회가 열리며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 행사 기간 중 평-일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 청소년 단체를 위한 대나무 물총 만들기, 비누 만들기, 달걀꾸러미 만들기 등 약 70여 종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전광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도심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농업 관련 체험행사를 통해 도민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가족힐링체험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으니 농업박람회장을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곡성군,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 표시 획득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토란’ 지리적 표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 국내에서 토란 품목이 지리적 표시를 획득한 것은 곡성군이 전국 최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곡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토란에는 ‘곡성토란’이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 곡성은 국내 최초로 토란을 상업적으로 재배한 지역이다. 또한 곡성토란은 전국에서 가장 알이 굵고, 비싼 값에 팔리며 명품 토란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곡성 토란의 브랜드 가치와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향후 곡성토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포장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멜론 추석 명절 선물로 각광 받아

- 추석 연휴 기간 16억 매출, 4만 5천여 상자 판매 -

-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4만 5천 가구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곡성멜론을 맛본 것으로 추정된다.
- 추석 기간 중 곡성멜론은 신세계, 롯데 등 전국 주요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와 만났다. 그 결과 추석 연휴 전 약 2주일 간 16억(도매가 기준)의 매출을 올렸다.
- 곡성군은 섬진강의 깨끗한 환경과 분지 지형이 만들어 낸 큰 일교차,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 여기에 농민들의 정성을 더해 재배된 곡성멜론은 ‘기차타고 멜론마을’이라는 브랜드로 2015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부문 대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 이를 바탕으로 곡성멜론은 전국 대형 백화점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이후에도 홍콩 등으로 꾸준히 수출 물량이 잡혀 있다.
- 특히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서 2018년부터 전국의 대형유통업체와 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촉 활동을 벌였다. 곡성군은 이처럼 소비자에게 곡성멜론에 대한 인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한가위 명절선물 주문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마늘 적기 파종 당부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본격적인 마늘 파종시기를 앞두고 마늘 적기 파종과 파종 후 핵심 재배기술을 통해 고품질 마늘 생산할 것을 농가 협조를 당부했다.
- 화순군 마늘의 대부분 난지형(남도마늘) 품종으로 9월 하순~10월 상순부터 파종을 시작하고, 종구를 통하여 감염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줄기선충, 뿌리응애 등은 씨마늘 소독을 적용 약제를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해 반드시 사전 병해충 예방을 해야 한다.
- 씨마늘 소독 요령은 선별한 씨마늘을 파종 1일 전 벤레이트티 500배액(물 20ℓ에 40g)과 디메토유제 1000배액(물 20ℓ에 20mℓ)을 혼합하여 1시간 담갔다가 그늘에 말린 후 파종한다. 소독할 씨마늘이 많을 경우 2~3일 전에 미리 소독 ,건조 후 파종하여도 된다.
- 마늘 재배 포장은 파종 2~3주 전에 퇴비와 석회를 포장 전면에 골고루 뿌린 후 깊이갈이를 하고, 파종 일주일 전에 화학비료와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골 만들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 난지형 품종의 적정 파종량은 10a 당 180~240kg으로 지난해에 병해충 피해가 없었던 종자를 사용해야 하며 파종 후에는 복토를 해 동해와 건조피해를 예방한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화순군, 고품질 김장채소 안정생산 당부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김장용 배추와 무의 재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기 정식과 적절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 무의 파종 적기는 9월 상순까지로 파종이 늦어질 경우 생육후기 저온으로 인한 뿌리 비대 불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기 파종이 중요하다. 또, 무 생육 후반기에 비료분이 부족하면 내한성이 약해지고 세균성혹반병 다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양·수분 관리로 뿌리 활력 유지시켜 줘야한다.
- 배추는 배추 본엽이 3~5매 가량 전개하였을 때 9월 중순까지 정식하면 된다.
- 정식할 발은 정식 10~15일전에 포장 고르는 작업을 완료하고 배추는 초기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좋으므로 밑거름에 중점을 두어 퇴비 등의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무름병과 무사마귀병, 배추좀나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석회나 붕소 결핍증이 흔히 나타나므로 10a당 석회 80~120kg, 붕사 1~1.5kg을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식 후 15일 이후부터는 생육 상황에 따라 4회에 걸쳐 웃거름을 사용해야한다.
- 배추는 결구가 시작되는 때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해 발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결핍증 등 생리장해의 발생이 심해지고 구가 작아지므로 관수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강진군, 논 타작물로 고품질 조사료 수확 시작

- 강진군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하계 조사료 수확을 시작했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 또는 2018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벼 대신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품목을 제외한 타작물 재배시 품목별로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 강진군은 올해 목표면적 656ha에 22억3천만 원의 국비 사업비와 5억5천만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고, 전체 총 485ha 재배면적에 조사료 400ha, 일반작물 37ha, 두류 28ha, 휴경 20ha를 신청 받아 논 타작물 재배를 추진하였다.
- 작목별 ha당 지원단가는 하계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이 지원되며, 강진군은 ha당 작물 재배시 74만 원, 휴경시 7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필지는 ha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옴천면에서 수확을 시작한 착한영농조합법인 마경무 대표는“올해 북삼면 일대에 100ha에 이르는 총체벼를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계약재배 하였으며, 올해는 고품질 조사료가 생산되어 높은 단가에 출하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강진군



강진군, 마늘 쪽분리 자동화시스템 ‘대박’

- 강진군이 올해 작천면 마늘공선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늘 일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마늘 일관 기계화 사업은 마늘 쪽분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으로 일일이 마늘 쪽을 분리하던 것을 기계화하는 사업이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군비 포함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 지난 6일 작천면 마늘공선회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에서 마늘 종구 쪽분리 작업의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혁신적인 노동력 절감효과와 1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 수작업으로 마늘을 쪽분리 하는 경우 한명이 하루 40~50kg정도 밖에 처리할 수 없지만, 쪽분리기 시스템의 경우 하루 평균 6톤 이상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1인 작업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배 이상 효율을 높이는 결과이다.
- 군 담당자에 따르면 마늘 쪽분리기 자동화 세트는 건조된 마늘을 3번의 쪽분리를 통해 불량률을 줄이고 정갈하게 처리하는 한편 크기 선별과 껍질 수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획기적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출처 : 강진군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 '총매출 2억 원' 돌파

- 지난 8월 29일 정식 개장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석연휴 동안 일일 매출 1천만 원을 넘기는 등 대박 행진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강진농협파머스 내에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샵인샵(매장 안 매장) 형태의 매장이자다.
- 9월 16일 기준 260농가의 240개 품목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임시개장 후 일일매출이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 평균 3백만 원 선을 유지했던 매출이 이번 추석을 맞아 개장 이후 최고치(1일 1천8백만 원)를 기록하며, 연휴 내내 활기 띤 모습을 보였다.
- 지난 60여 일 간 이뤄진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출하농가 65%가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고, 33%가 100만 원 이상, 2%가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 강진군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신선채소류 공급 확대를 위해 농가를 조직화하여 연중 기획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급 능력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출처 : 강진군



해남군, 농수특산물 경쟁력 도지사품질인증으로 높이자!

- 해남군, 9월 30일까지 도지사품질인증 신청 접수 -

- 해남군은 우수 농수산물과 축산, 임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 신청 자격은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된 우수 제품으로,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식품제조가공 공장이 전남도내 소재해야 한다.
-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성, 상품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 선정된 도지사품질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3년간 포장재 등에 전라남도 통합상표를 인쇄해 도지사인증 품목임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위생관리,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도 실시된다.
-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해남군 16개 업체 73개 품목을 포함해 도내 310개 업체, 1,193개 품목이 선정돼 있다.
-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 : 해남군



해남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방역'총력'

- 생석회 긴급 배포, 차단벨트 구축 등 최고 수준 방역 실시 -

-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생함에 따라 해남군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강력한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 우선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17일부터 이틀간 관내 돼지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전면 이동중지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축산사업소에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해남군에서 이동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입·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특히 양돈농가 농가별로 자체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 2,015포와 소독약품 1,000포를 구입해 긴급 배포, 축사 주변에 살포해 차단 벨트를 구축했다.
-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일제소독을 매일 실시, 방역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명현관 해남군수는 17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방역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명군수는“발생지역과 떨어진 지역이라는데 방심하지 말고 최고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축산 농가에서도 모임 자제 등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돼지열병 청정해남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아열대과일 백향과 본격 출하

-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열대과수인 백향과(패션프루트)가 본격적으로 수확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무안군 운남면 이규동 농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설하우스에서 백향과 0.3ha를 연2기작 재배해오고 있으며, 1년차 동해 및 경험부족을 극복하여 3년차인 지난해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성공적 귀농정착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이규동 농가는 “올해엔 10톤 수확으로 8천만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농가에 전파 및 작목반 구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 백향과는 브라질원산 아열대과수로 새콤달콤 등 백 가지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백향과로 불리며, 과즙 100g당 10.4g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 또한, 엽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돼 있고 특히 비타민C,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아연 등도 풍부해서 노화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수입품이 냉동으로 들여오는 데 반해 국내산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무안군



함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전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군은 즉각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군 청사 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가축 전국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효된 지난 17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양돈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이동금지제한을 실시하고 점검반 2개팀을 꾸려 농가 소독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함평 우시장 내 거점소독시설도 평일 주간 2교대에서 전일 주야간 3교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지역 축산 농가를 방문하는 전 차량은 반드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받아야만 출입 가능토록 했다.
- 군은 앞으로도 지역축협과 연계한 공동방제단을 통해 지역양돈농가 전체에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차량 GPS 부착과 운영 상황 등도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군 차원의 소독도 중요하지만 농가 자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돈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련 의심 증상 발생 시 군에 신속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함평군



영광군,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교육 실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일 굴비골농협 대회의실에서 감자 재배 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교육을 실시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 조기동 주무관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기 위한 농업인을 위해 실시됐으며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GAP인증을 받기 위한 농업인들의 배움의 열기가 그 어느 교육보다도 뜨거웠다.
- 이번 교육은 GAP농산물 재배기술 및 인증 심사절차의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GAP시설 표준모델, 관련 규정 등의 자세한 설명으로 농업인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이 태풍이 지나간 후 농작물 관리요령과 당면영농추진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관리하는 제도이며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양과 수질 등의 농업환경은 물론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과 중금속 등 각종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출처 : 영광군



베트남, 포도 시장 현황

- 시장동향 -

- 베트남, 신선 포도를 주로 수입하는 시장
 - 베트남의 신선 포도 수입은 '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신선 포도 수출은 17년 약 3만 5천 불로,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2018년 포도 자국 생산량은 31,310톤, 수입량은 94,470톤으로 수입산 물량이 전체의 7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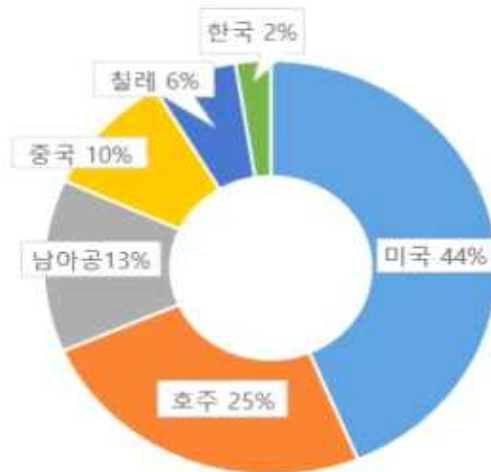
베트남, 포도 수출입 총계
(단위: 천\$)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입 총계	39,143	41,356	39,829	46,726	58,575
수출 총계	1,047	-	-	68	35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미국, 호주는 베트남의 신선포도 주요 수입국가
 - '17년 기준 포도는 주로 미국산(44%), 호주산(25%)을 수입

수입 주요 국가별 신선 포도 수입 비중(2017)



자료: 베트남 통계청 (HS CODE: 0806 10)

- 미국은 주로 Sugrathirteen, Flame, Sugaone, Sweet Sapphire 등을 수출
- 호주는 주로 Thompson Seedless, Crimson Seedless, Sweet Sapphire 품종 등을 수출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

- 베트남 소비자, 미국과 호주산 포도가 익숙
 - 베트남 소비자는 씨가 없고 당도가 높으며 껍질째 먹는 포도를 선호함
 - 베트남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신선 포도는 비교적 저렴하며 고당도인 미국산과 호주산 포도
- 한국의 포도, 프리미엄 포지셔닝
 - 한국주 주 수출 품목인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고급 제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포지셔닝 노력
 - 현재 베트남 내 샤인머스켓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며, 한국은 일본보다 1/2 가격 수준

- 유통 실태

- 15종 이상의 다양한 포도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한 유통업체당 약 4~6 품종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주로 미국산과 한국산 포도를 판매
- 미국산 포도는 보통 0.6~0.8kg, 한국산 포도는 0.8~0.9kg에 진열 및 판매
- 한국산 거봉은 타 수입산 가격의 2~3배, 샤인머스켓은 4~5배 수준의 가격 형성
- 한국산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보호망과 투명 포장지로 패키징하여 고급화

- 시사점 -

- 타켓층 세분화를 통한 판매전략 수립

- 한국산 수입 포도는 샤인머스켓이 대부분으로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을 타켓으로한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
- 유통점별 패키징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 랩핑 형태의 포장이 아닌 선물용, 개별 패키징 형태의 포장 기준 제시 및 협조 요청

- 판촉 및 홍보 행사의 활성화

- 한국산 주 수입시기에 맞춘 전략적 판촉 홍보행사로 샤인머스켓·거봉 및 신품종에 대한 현지 소비자 인지도 강화 필요

- 품질 관리

- 품질 만족도는 높지만 가격 만족도가 낮은 현 샤인머스켓에서 품질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프리미엄 포도의 지위를 지속·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한국산 과일의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2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대량 공급으로 인해 다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8%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이번주 초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금요일 약세를 보였다. 무역업자들은 미국이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판매에 대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대두의 감소와 미국 작물에 대한 좋은 날씨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금요일 하락했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가 다음 주 예정되었던 중국 농업 관계자들의 방문을 취소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금요일 하락했다. 무역업자들은 중국이 최근 미국산 대두를 일부 구입했지만 그 거래는 이미 시장에 의해 소화가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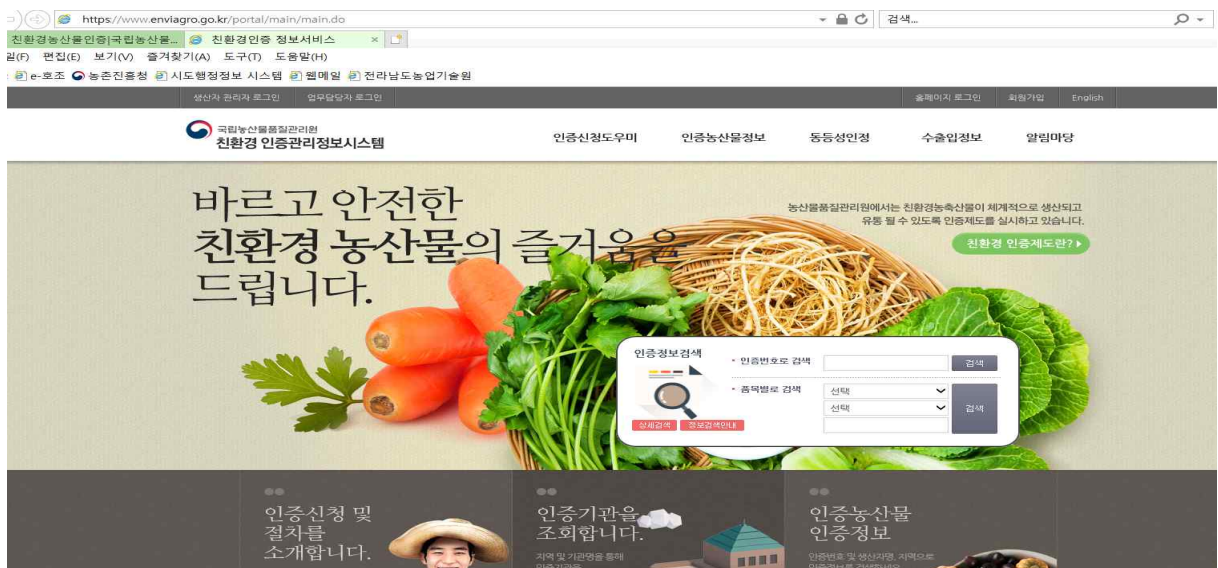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인증신청도우미, 인증농산물정보, 동등성인정, 수출입정보, 알림마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인증신청도우미에서는 인증신청안내, 인증기관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증농산물정보에서는 인증표시소개, 인증정보, 직거래, 부정유통신고, 친환경인증통계,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정보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일괄검색 가능
 - 직거래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가능
 - 친환경인증통계는 조회구분, 업무구분, 기간, 시/도, 인증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우수식품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는 우수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인증정보보회, 정보광장, 온라인기술지원/상담, 민원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우수식품인증제도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및 작도법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 인증정보조회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조회, 전통식품품질 인증조회, 민간인증기관 지정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청백리 정봉 선생 일화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51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